


이동해·김은희의 선교현장 이야기


215 번째


참되고 지혜롭게


2023년 10월 31일

 P.O. Box 11701 Kampala Uganda

 이동해_salt dh@gmail.com
김은희_saltkeh@gmail.com

 이동해_salt dh
김은희_saltkeh

 이동해_+256(0)774-605808
김은희_+256(0)784-239806

 후원금 관리_서현교회 권정선 자매
(010-5348-2824)



10월의 화창한 날, 우간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간다로 다시 돌아오는 길은 평소와 같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의 기쁨과 슬픔, 아픔은 아무리 반복해도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감정인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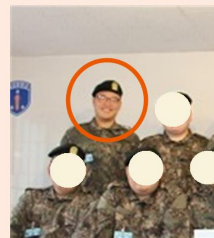
특히 가족이면 더 그렇고, 더구나 언제 다시 만날 약속이 없이 헤어진다는 것은 많이 아프고 힘들게 했습니다. 막상 우간다로 돌아와 밀린 일들이 많았지만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가족이 함께 지냈던 선물과 같은 3주가 지나가고 강진이부터 출국하고, 저희는 강현이가 논산으로 훈련 입소하기 하루전 날 먼저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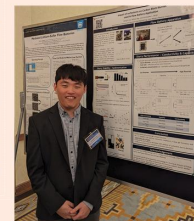
한국에 혼자 남아 부모를 선교지에 먼저 보내서 그런지, 강현이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논산 훈련소에 같이 가지 못 하는 것이 많이 미안하고 아쉬웠지만 그래도 주위에 많은 분들이 강현이의 훈련소 입소와 퇴소를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해 주셔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강현이는 이번주 2일에 3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서울교통공사 소속으로 사회복지 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강진이도 미국으로 돌아가 다시 연구와 학회 참석으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학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연구한 분야를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가족은 이제 언제 다시 함께 만날지 모르는 가운데 함께 지낸 꿈만 같던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훌쩍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서 다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누가 이렇게 살라고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질문들이 종종 생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이런 것이라면 묵묵히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한국에서 출국하면서 강원도 문막에 위치한 대안 학교의 고등학생 두 명과 같이 우간다로 왔습니다. 우간다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 한 교수님의 추천으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이어서 망설였다가, 부모님과 선생님, 아이들, 목사님을 직접 만나 뵙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치고 남은 시간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12월 11일 출국까지 약 두 달 동안 저희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교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빠르게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

구하고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하며 교사들과 아이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딸이 없는 저희에게 딸 같기도 하고 저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선물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자리를 비운 가운데서도 교직원들이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학기를 마무리하는 방학과 새로운 팀을 시작하는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같이 지내온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그동안 함께 했던 대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재정이 들어가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주차장 그늘막의 목재 구조물이 깨기 때문에 다 쓰러져 가고, 역시 목조 구조물로 지었던 강당의 지붕에서

비가 새고 있었고, 화장실의 수도 꼭지와 변기 커버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불편하지만 생활 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손을 대지 않는 이들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보는 듯했습니다. 오자마자 저는 공사부터 해야 했습니다. 주차장 그늘막을 철구조물로 다시 세우고, 비가 새는 강당 지붕을 다시 고치고, 학교 장비들을 다시 점검하고.....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



진행 중인 땅 재판은 소송 제기했던 사람들이 원래 주인의 후손들이 아니라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어 앞으로의 재판이 저희 쪽으로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진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현실에 마주한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도 두 자매로 인해 새로운 삶의 모습이 전개되는 활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11월에는 학교 졸업식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한국에서 사회봉사요원으로 복무하는 강현이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도록.
2. 강진이의 연구와 학회 참석에 지혜를 주시고, 앞으로 하게 될 인턴과정에도 선택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3. 12월 11일까지 함께 생활하게 된 두 자매(초은자, 윤호수)의 우간다 생활을 인도해 주시고, 우간다에서의 생활이 자매들의 인생에서 멋진 시간들로 채워지고 기억되도록.
4. 11월에 있을 유치원 과정 졸업식과 초등학교 3학년의 수료를 잘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5. 한국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삶의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6. 11월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들이 되도록.